

주요 천문 현상

11월

03일	04:14 망
05일	04:00 해왕성 유(서→동) 17:00 수성 외합
07일	15:56 입동(태양 황경 225°)
10일	00:56 하현
17일	04:14 합삭
18일	00:10 사자자리 유성우(ZHR:100이상)
22일	13:22 소설(태양 황경 240°)
25일	06:39 상현

S	M	T	W	T	F	S
1	2	3	4	5	6	7
●	●	● 망	●	●	●	●
8	9	10	11	12	13	14
●	●	● 하현	●	●	●	●
15	16	17	18	19	20	21
(((합삭))))
22	23	24	25	26	27	28
)))) 상현)))
29	30					
●	●					

◎ 18일, 사자자리 유성우 극대 예상

2001년 11월 18일 밤부터 19일 새벽까지 사자자리 유성우를 지켜보았던 사람이라면 밤하늘에서 펼쳐진 최고의 우주쇼를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18일 밤부터 시작된 유성우는 19일 새벽 동이 틀 무렵까지 실 틈 없이 말 그대로 비처럼 쏟아졌다. 사자자리 유성우는 모헤성 템펠-터틀 혜성의 주기인 33년마다 대출현을 해오고 있다. 이런 이유로 2001년 이후에는 평범한 모습만을 보여 왔다. 그런데 2001년만큼은 아니지만 올해 희망적인 예측이 나오고 있다. 유성우 전문가에 따라서는 시간당 최대 1,000개 이상 유성이 출현할 수도 있다는 예측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올해 극대 예상 시각은 전문가들에 따라 의견이 다양하지만, 대략 17일 밤부터 18일 새벽 사이일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유성기구(IMO)의 '2009 유성우 캘린더'에는 극대 예상 시각이 우리나라 시각으로 18일 0시 10분(UT: 17일 15시 10분)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ZHR은 100개 이상으로 예측하고 있다. 17일이 합삭이므로 모든 면에서 국내 관측 조건은 최상이다.

IMO 사이트 : <http://www.imo.net/calendar/2009>



▶ 2001년 사자자리 유성우